

社會指標의 體系와 活用

朱 鶴 中

目 次

- I. 序 論
- II. 社會指標의 定義와 機能
- III. 指標의 體系化
- IV. 社會指標의 活用
- V. 우리나라의 社會指標와 例示的 活用
- M. 要約 및 結論

I. 序 論

60年代 後半부터 온 世界 知性的 注目を 끈 이른바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活動」(social indicators movement)은 先進國의 좋은 環境에서 開發된 새로운 概念과 接近方法으로서 社會科學分野에 또 하나의 挑戰과 機會와 問題의 衝擊을 加하였다. 社會指標와 같이 流行性이 있는 새로운 概念이나 接近方法은 흔히 開發途上國의 政策 및 計劃當局, 學界, 國民一

般들에게 有用성과 限界성을 포함한 그 精確한 內容보다 단순한 概念的 用語가 쉽게 널리 소개되고, 發展問題를 解決하려는 過程에 그 有用성에 대한 期待를 크게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은, 물론 그 長·短點이 있다. 長點으로서는 先進諸國에서 開發된 學問과 技術을 後進國의 與件에 適切히 活用함으로써 先進國과의 隔差를 쉽게 短縮시킬 수 있다. 그러나 短點으로서는 先進國의 學問과 技術의 發展과 충격적 波及의 速度가 開發途上國의 適應能力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先進國의 風土에서 개발된 새로운 學問的, 技術的 概念이 開發途上國에 어떤 意味를 갖는가를 吟味할 수 있는 餘裕가 없이 불충분하거나 誤解한 가운데 國際機關의 勸告만 있으면¹⁾ 濫用되며 開發國의 發展의 努力을 沮害하거나 심지어는 計劃 및 政策當局者가 그 나라에 社會指標가 없기 때문에 좋은 政策과 計劃立案을 못한다는 구실로 惡用되는 경우가 있다.

本 論文은 60年代末부터 世界를 휩쓸고 70

筆者：韓國開發研究院 研究委員

1) 國際機關의 勸告는 흔히 優先順位를 提示하기보다 多 多益善이라는 安일한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後進國에 지나친 負擔이 될 경우가 許多하다.

年代 後半期에 다소 退潮는 되었으나 상당한 學問的 努力이 傾注되고 있는 社會指標의 올바른 理解를 開發途上國의 學者로서 試圖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社會指標에 관한 論文이 극히 限定的이고, 근래에 와서 이에 관한 研究가 다소 活氣를 띠는 傾向이 있기 때문에²⁾ 이 分野에 관심있는 社會科學者는 물론 政策 및 計劃立案者의 이해를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 論文을 크게 두 部分, 즉 理論的인 體系와 學術的 및 政策的 活用으로 區分하였다. 둘째는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의 立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智慧와 知識의 限界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挑戰³⁾이라고 할 수 있는 社會指標의 概念上 및 活用上의 有用성과 限界성을 糾明하려고 한 것이다. 社會指標에 대한 理論的 體系—다소 誤解를 불러 일으킬 素地가 있는—는 그 定義와 機能, 體系化와 計數化를, 社會指標의 活用은 우리나라와 外國의 資料를 利用한 學術的인 應用과 政策的인 活用の 例示的 分析을 각각 다루었다. 이 論文에서 특히 留意한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社會指標는 先·後進國의 여러 社會科學者에 의하여 研究되었기 때문에 多樣하고 때로는 相反된 見解를 주어진 紙面에 가급적 包括하려는 意識的 努力을 傾注하였다. 둘째로, 先進國에서 體系化되고 發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에 適用하였을 때에 發生하는 制約을 克服하고 우리 風土

에 맞는 意味를 賦與하려고 하였다. 다만 經濟學에 익숙한 사람이 執筆한 것이기 때문에 經濟發展論的 偏向이 다소 풍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II. 社會指標의 定義와 機能

1. 社會指標의 語義

社會指標를 定義하기에 앞서 社會指標의 言語學的 意味(semantics)를 吟味할 필요가 있다. 그 理由는 社會指標라는 用語가 大衆媒體를 통하여 一般에게 소개되고 日常生活化되면 一般國民은 물론 知識人까지도 이에 관한 基本書나 이 用語가 수록된 社會科學事典도 읽어 볼 時間的 餘裕를 얻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概念과 定義를 定立하여 적지않은 混亂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社會指標는 「社會」와 「指標」의 複合名詞이다. 語義學的으로 보아 混亂의 素地가 큰 것은 指標라는 用語이다. 國語辭典에 의하면 指標란, 「方向, 目的 등을 나타내는 標識」로서 「다른 무엇을 나타내는 어떤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러한 意味에서 指標는 單純한 統計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그러나 노벨經濟學賞受賞者인 Simon Kuznets에 의하면⁴⁾, 統計가 單純한 計數의 資料와 區分되는 것은 合目的인 定義를 土臺로 하여 集計된 것이기 때문에 統計도 數學以上の 것을 나타내고 있다. 더우기 이러한 意味의 統計는 이를 받아들이는 個人의 能力과 知覺에 의한 해석에 따라 그 이상의 것을 表示하기 때문에 統計와

2) 本稿 참조, pp.42~43.

3) 이 意味는 삶의 質과 福利와 같은 不可測을 測定하고 그 多樣한 構成要件을 總量화하는 데 따르는 加重值를 적절히 策定하는 것과 같이 社會科學의 歷史的인 難題를 다룬다는 뜻이다.

4) Simon Kuznets 教授가 1972年 7月 11日 韓國開發研究院에서 가졌던 特講 “Quantitative Economic Research: Function and Problem”에서 指摘한 것이다.

指標을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實情이다⁵⁾. 그러므로 社會指標에 처음 접하였을 때 社會指標란 보기 좋은 形態를 갖춘 統計에 불과한 것으로 初心者는 보고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學者에 따라 統計는 事實上(ipso facto) 指標가 될 수 없고⁶⁾ 「指標는 그 自體(prima facie)가 나타내는 것 以上の 屬性을 나타내지 않으면 用語의 概念的 關聯性을 喪失한다」⁷⁾고 하는 立場을 취하기도 한다.

指標가 단순한 統計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表示하려면 최소한 두가지 條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어떤 무엇이 다른 무엇을 나타내는 데 대한 分명한 理解와 合意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世界保健機構(WHO)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健康을 定義하려고 試圖하였으나 아직도 合意된 計量的 指標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通說의 定義도 定立되어 있지 않다⁸⁾. 둘째로 一般讀者와 利用者가 指標가 나타내는 것을 認知할 수 있는 理論의 定立이 필요하다. 社會變動에 관한 定說의 不在는 認知過程을 어렵게 하며 社會指標에 대한 不當

한 批評까지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다.

名詞인 「社會」는 用語上 誤解를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原因이 된다. 이 名詞의 올바른 의미는 接頭語 「經濟」에 對應되는 것이 아니라 經濟學이 社會科學의 한 分野인 것과 같이 經濟를 포함한 보다 廣意의 概念이다. 그러므로 社會指標의 體系 속에는 指標體系를 구성하는 여러 經濟指標는 물론 人口·人力, 保健, 住居, 環境, 公安, 家庭 등 여러 關心領域의 指標를 포괄하고 있다.

2. 學術的 定義

學界에서 사용되는 어떤 用語는 一般의인 概念으로 定義되는 것이 通常의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活動」이 60年代 이후 展開되었으나 社會指標의 定義는 아직도 定立되는 過程에 있다. 筆者의 見解로는 누구나 共感하여 合意할 수 있는 社會指標의 定義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定立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그 理由는 前述한 바와 같이 많은 領域을 포괄하고 用途가 매우 다양하며 人智의 限界 이상의 基本的인 課題에 문제를 提起하기 때문이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社會指標에 관한 수많은 文獻을 통하여 社會指標의 定義에 대한 몇 가지 뚜렷한 定義上的 特徵이 나타나고 있다. 社會指標의 創始者의 한 사람인 Raymond Bauer는 社會指標란 「우리의 價値와 目標를 指向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評價할 수 있는 통계, 統計系列 및 다른 形態의 모든 證據」라고 定義한다¹⁰⁾. 이러한 社會指標의 定義에 따르면, 社會지표는 合意·設定된 社會的 價値와 目標가 前提

5) M.J. Moroney, *Facts from Figures*, Peuguin Books, 1951.

6) Donald McGranahan, "Development Indicators and Development Models", Nancy Baster(ed.), *Measuring Development: The Role and Adequacy of Development Indicators*, London: Frank Cass, 1972, p.91.

7) Ramkrishna Mukherjee, *Social Indicators*, Bombay: MacMillan, 1975.

8) Hakchung Choo, "National Health Data and Information System", Chong Kee Park (ed.),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0, p.173.

9) 社會指標論者들은 福祉의 測定을 試圖하고, 數世代에 걸친 問題의 解決 및 理論이 없는 測定의 問題 등을 다룬다.

10) Raymond Bauer, "Detection and Anticipation of Impact: The Nature of the task", R.A. Bauer(ed.),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1966, p.1. 美國에서 이러한 傳統은 歷史적으로 이미 1930年代 「후버」行政府 이래 確立되어 있다.

되고 이에 대한 現況과 이를 向한 趨勢를 나타내는 規範的 性格을 띠고 있다. 前提된 規範的 價値와 目標을 規定한다는 것은 아직도 學者間에 合意되지 않은 社會指標을 定義하기 보다 더 어렵다. 이러한 社會指標의 定義가 含蓄的으로 가정하는 것은 어떤 指標의 向方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判別할 수 있는 理論的 根據가 있어야 한다¹¹⁾. 이와 같은 前提的 要件을 갖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이에 따라 社會指標을 定義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다.

Bauer의 古典的 定義에 뒤이어 定義上 特定한 側面을 강조하는 社會指標의 定義가 발견되었다. 그 하나는 社會의 價値와 目標을 보다 일반적인 개념인 「삶의 質」과 「社會福祉의 向上」으로 代替한 것이다¹²⁾. 여기서 社會指標은 좋은 삶의 質과 向上된 社會福祉를 나타내는 發展指標과 같은 意味로 다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하나는 社會心理學, 人口學, 行態學

등 여러 變數를 社會變動過程에 관련시킨 社會模型의 展開를 重要視하는 立場이다¹³⁾. 이러한 目的을 위하여 社會統計는 設定된 模型의 精巧性에 따라 적절히 集成(agggregation) 또는 細分化(disagggregation) 된다.

이상과 같은 價値判斷論的 社會指標의 定義와는 對照的인 一例로서 Richard Stone은 社會指標를 好奇心, 理解, 또는 行動을 그 目的으로 하는 社會적 關心領域에 관련된 것으로 定義하고 있다¹⁴⁾. Stone의 정의는 價値判斷論的 立場을 벗어나고 伸縮性이 있다는 長點은 있으나 지나치게 一般論的이며 具體性이 缺如된 短點이 있다. 어떤 社會的 關心領域의 統計나 指標라 하더라도 호기심을 자극하고 理解를 증진시키고 行動을 誘發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모든 社會統計가 Stone의 社會指標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例示的인 社會指標의 定義만 해도 매우 多樣한데 그 以外의 것을 모두 包括하여 하나의 定義로써 綜合化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며 筆者의 能力의 限界를 분명히 넘는 일이다. 그러므로 Claus Moser卿에 따라¹⁵⁾ 社會指標의 輪廓을 지음으로써 장님이 더듬은 코끼리를 合成(synthesize)하여 일단이 定義上의 混亂을 中止시키기로 한다.

첫째, 社會指標의 規範性은 흔히 논의되거나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指標로서의 統計와 用途가 區分되어야 한다. 즉, 같은 指標라 하더라도 用途와 發展段階에 따라 다른 意味를 갖는다¹⁶⁾.

둘째, 社會指標는 加급적이면 投入(inputs)보다 產出(outputs)과 관련지어야 한다. 그 例로서 社會指標는 삶의 質의 構成物보다는 삶의 質 그 自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社

11) 經濟社會現象을 그 現象이 무엇이든 一律的으로 規定할 수 없다.

12) Nake E. Karmrany and Alexander Christakis, "Social Indicators in Perspective",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 Vol. 1, No. 4, June 1970, p. 208; M. Olson, Jr., "An Agenda for the Development of Measures of Progress of Racial or Ethnic Group", Working Pape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68, p.6.

13) Nancy Baster(ed.), *Measuring Development: The Role and Adequacy of Development Indicators*, London: Frank Cass, 1972; Kenneth C. Land, "Social Indicators", Robert B. Smith(ed.), *Social Science Methods*, New York: The Free Press, 1970.

14) United Nations, *Towards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74, XVII, 8, Para. 58.

15) Claus Moser, "Social Indicators-Systems, Methods, and Problem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19, No. 2, June 1973, pp.135~136.

16) Moser卿은 그 例로서 出產率을 들고 이 比率이 濠州와 印度에서 相異한 意味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會科學의 現學問水準이나 특히 社會科學에 있어서 本質的인 因果의 循環性에 비추어 現實的으로 投入을 產出의 代變數(proxy)로 삼도록 强要된다¹⁷⁾.

세째, UN社會開發研究所에서 내린 指標概念에 의하면 社會指標은 일반적인 福利와 社會的 關心을 포괄적으로 集成한 測定值라야 한다¹⁸⁾. 이러한 立場에 따라 福利의 複合指標가 試圖되고 있으나 人類가 오늘날까지 만족할 만한 解答을 주지 못한 指數와 加重值의 問題로 坐礁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도 加급적이면 指標自體의 概念보다도 더 넓은 것을 要約하거나 나타내려는 努力이 계속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社會指標은 다른 무엇을 순수하게 나타내려면 어떤 系列의 構造와 體系에 包含되어야 한다. 또한 社會指標은 說明(explanatory) 또는 豫測模型에서 抽出되어야 한다. 이러한 要件은 上述한 바와 같은 社會指標의 包括性和 밀접한 關係를 지니고 있다.

요컨대 社會指標은 理想的으로 말하면 通常的으로 規範的이나 用途에 따라 반드시 갖출 要件은 아니며 人類의 福利를 包括적으로 集成한 產出指標라야 하고 社會模型에 의거하여 순수하게 表示되어야 한다. 따라서 社會的 價値와 目標가 設定되면 社會指標로서 社會的 向方을 評價할 수 있으며 이로써 社會的 關心 領域에 있어서 호기심의 充足이나 理解의 增進이나 行動의 根據로서 活用할 수 있다.

17) 例로서 健康은 產出의 指標이나 投入인 醫療資源의 指標로서 모든 指標體系가 이를 대신한다.

18) Jan Drewnowski and Wolf Scott, *The Level of Living Index*,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 4, Geneva, 1966.

19) Claus Moser, 前揭論文, p.133.

20) President's Commission on National Goals, *Goals for Americans*, New York: Prentice Hall, 1960.

3. 社會指標의 機能

社會指標의 機能은 上述한 社會指標의 定義에 含蓄되어 있다. 그 機能을 要約하면 「社會與件의 狀態와 變動을 要約함으로써 現存하거나 派生되는 重要한 社會的 問題를 지적하고 社會政策과 프로그램의 成果를 傳達」하는 데 도움을 준다¹⁹⁾. 여기에 있어서도 現象의 포괄성과 全體를 보는 視角이 필요하다. 이 같은 社會指標의 機能的 目的으로 인하여 社會指標라는 用語는 「社會情報」(social intelligence), 「社會報告」(social reporting), 「社會計定」, 또는 「社會的 傳達」(social monitoring)과 같은 用語와 同意語로서 흔히 利用되고 있다.

社會指標가 統計, 統計系列, 다른 形態의 證據로서 表現되기 때문에 사회지표는 社會與件, 社會的 成果(Societal Performance), 福祉水準을 測定한다. 社會的 與件은 社會的 構造, 機能, 形態 및 過程에 관련된 人類의 生活與件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社會的 成果는 質的, 量的 서비스 產出과 그 配分을 測定하며 福祉水準의 測定은 個人과 社會全體의 水準과 配分을 나타낸다.

社會指標의 規範的 用途는 그 目的에 다른 하나의 次元을 더하여 준다. 이러한 立場에 의하면 社會指標은 社會的 價値와 目的을 位階의 形態로서 나타내는 데 利用된다. 이러한 價値의 位階는 社會指標의 體系로서 쉽게 具體化할 수 있다. 國家의 價値와 目標가 指標의 形態로서 표시되면 社會的 問題의 早期感知, 社會的 變化의 傳達, 바람직스럽지 못한 變化에 대한 介入 등을 可能하게 한다²⁰⁾. 뿐만 아니라 社會報告(Social Reporting)가 制度

化되면 社會指標은 國民一般에게 우리의 價値와 目標에 비추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情報(information)를 주고 變化에 대한 自覺을 增進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추세를 바람직스러운 方向으로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能力을 強化시켜 준다²¹⁾.

開發途上國에서 社會指標은 國家發展의 目的에 活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Nancy Baster는 發展指標로서 社會指標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社會指標은 추세의 說明, 具體的인 發展狀況의 진단(또는 추세와 狀況의 比較), 變數間 相關關係의 分析, 豫測, 計劃目的과 目標의 測定 및 實績評價 등에 利用될 수 있다」²²⁾.

불행히도 Baster가 지적한 發展指標의 機能은 그 自體의 特有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計劃과 分析의 實踐過程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統計資料가 事實上 이상과 같은 機能과 用途에 利用되고 있다. 그러므로 Baster의 發展指標의 機能은 보다 具體的으로 特性있게 規定되기 전에는 큰 意味가 없다.

다른 하나의 社會指標의 잠재적 用途는 Stone이 指摘하였듯이 社會發展의 學問的 發展狀態에 비추어 社會政策 立案과 社會發展計劃 樹立에 根據를 提示할 수 있고 社會變動過程에 관한 理解를 增進시킬 수 있는 實證的 研究과 관련시켜 이용하는 것이다²³⁾. 오늘날

과 같이 實證主義가 學界에 크게 影響을 미치는 時代에 社會發展과 政策에 假說을 定할 수 있으나 設定된 假說을 檢證할 수 있는 可用統計의 制約에 直面하는 것이 現實이다.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信빙성있는 統計系列과 因果論的 分析의 결여는 計劃 및 政策當局者에게 社會開發政策의 重要性和 必要性을 說得시키는데 커다란 制約이 되고 있음은 福祉 및 社會開發 分野의 從事者가 항상 통감하는 艱難한 必要이다.

Ⅲ. 指標의 體系化

上述한 바와 같이 社會指標에 대한 定義와 機能의 윤곽을 設定하여 社會的 價値와 目標을 나타내고 個人의 福祉와 國民福祉를 測定한다고 추상적으로 말하기 쉬우나 이를 統計, 系列 및 다른 形態의 證據로서 具體的으로 表示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實務的인 課題이다. 만약 무엇을 어떻게 測定한다는 理論的 根據가 確立되어 있다면 社會指標의 理論的 틀(framework)을 作成한다는 것은 單純한 機械的 作業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社會指標가 궁극적으로 나타내려는 것과 그 構造의 體系에 對한 定義와 理論이 아직도 確立되어 있지 않고 있다. 社會指標의 背景이 되는 人間의 基本的 및 高次元의 欲求와 必要는 한 時點에 있어서 매우 多樣하고 많을 뿐만 아니라 時間의 흐름에 따라 그 變化가 무쌍하다.

이러한 制約과 問題點으로 因하여 社會指標와 그 構造의 具體化와 그 計數的 內容을 提

21) Micheal Springer, "Social Indicators, Reports, and Accounts: Toward the Management of Society",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March 1970, pp.1~3.

22) Nancy Baster, "Development Indicators: An Introduct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VIII, No. 3, April 1972, p.5.

23) United Nations, 前揭書, p. 6.

供하려고 많은 試圖이 경주되어 왔다²⁴⁾. 한 社會의 社會的 關心領域과 與件이 多樣하고 많은 差異가 있기 때문에 經濟社會發展段階에 適合한 社會指標의 構造 또는 體系를 設定하려는 努力이 여러 機關에 의하여 展開되고 있다. 편의상 여기에서는 概念的 體系와 統計的 表示의 具體化를 區分하여 다루되²⁵⁾ 前者에 대하여서는 國際機關에서 試圖된 代表的인 類型 세가지와 後者에 對하여서는 開發途上國의 統計實情에 비추어 이에 대한 努力을 重點의 으로 다루기로 한다.

1. 構造的 體系의 定立

國際機關에 의한 社會指標의 體系로서 提示된 代表的인 것은 UN사회개발연구소(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의 開發途上國을 意識한 初期의 試圖²⁶⁾와 OECD가 社會的 關心領域으로서 接近한 것²⁷⁾과 UN이 권고한 社會·人口統計體系²⁸⁾ 등이며 說明上 必要에 따라 各國에 있어서의 社會指標體系의 發展과 變形에 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가. UNRISD의 指標體系

後述할 두 體系의 形態와는 대조적으로 UNRISD의 社會指標體系는 開發途上國의 發展問題를 意識하여 營養, 住宅, 保健, 教育, 여가선용, 社會保障 등 이른바 社會部門을 포괄한 人間의 基本的 需要를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表 1>에 要約된 바와 같이 各 社會部門이 몇 개의 指標로서 代表되는 두 계단의 構造로 나타나 있다.

UNRISD型의 指標體系가 이와 같이 간단한 形態를 취하는 것은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資料의 可用성과 比較可能性의 現實의 問題가 있기 때문이다²⁹⁾. UNRISD는 社會指標의 體系를 設定하는 데 있어서 前途한 바와 같이 社會指標의 理論的인 本質에 充實하기보다는 後述할 內容과 같이³⁰⁾ 開發途上國의 統計上 實情에 크게 妥協한 것이다. 國際機關으로서 어느 機關보다 먼저 社會指標의 體系化 特히 計數的 實體를 提供하였다는 데 큰 意義가 있다.

近年에 있어서 UNRISD에서 社會指標와 發展指標에 관한 研究는 다소 그 力點이 變化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研究에서 初期에 發展시킨 社會指標를 보다 發展시키려는 努力보다는 開發途上國의 發展指標의 「데이터 뱅크」를 設立하고 있다³¹⁾. 이 「데이터 뱅크」에 包含된

24) 여기서 말하는 “構造”(system)라는 말은 하나의 틀 (framework)에 포함되는 指標類型을 가리킨다기 보다는 오히려 관련되는 모든 事項을 指標의 틀에 포함시키기 위한 體系의 接近을 暗示한다.

25) 여기서 看過하여서 안될 것은 社會指標의 概念的 體系化와 計數的 內容의 具體化로 편의상 두 가지를 區分하였으나 具體的인 作業過程에 있어서는 同時에 進行되는 것이 通常的이다. 前者의 學問的 意欲과 後者の 資料蒐集의 制約이 서로 交互作用을 하여 實際作業에 있어서는 어떤 妥協點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26) Jan Drewnowski and Wolf Scott, 前掲書 참조.

27)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Paris, June 1973.

28) United Nations, 前提書 참조.

29) 近年에 있어서 UNRISD는 開發途上國을 對象으로 한 Data Bank를 設立하여 資料의 系列을 擴大하였다. 그러나 이 分野를 研究하던 McGranahan이 헤이그로 떠난 후 이들 社會指標에 관한 作業은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30) 本稿 pp.41~42 참조.

31) Jan Drewnowski,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s of Living and Welfare*,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 70. 3, Geneva, 1970; Wolf Scott, *The Measurement of Real Progress at the Local Level: Examples from the Literature and a Pilot Study*,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 73. 3, Geneva, 1973.

〈表 1〉 UNRISD의 指標體系

1. 「生活水準」指標

領 域	指 標
營 養	熱量攝取量 단백질攝取量 澱粉 以外的 熱量攝取比率
住 居	住宅의 有無(有住宅率) 居住密度 住宅의 專用
健 康	病院의 利用可能性 醫療의 利用可能性(病院 除外) 豫防의 水準
教 育	學校在籍率 卒業者比率 教師當 學生數
餘 暇 安 全	餘暇時間 個人의 安定 및 安全 生活의 安定 및 安全
環 境	通信 旅行 스포츠參與 文化活動 衣服 物的 環境(空氣, 道路, 綠地, 景觀 등)

2. 「福祉水準」指標

領 域	指 標
身 體 狀 態 (肉體的 發達水準)	國民身體狀態(醫學的 檢査에 의한) 健康(疾病으로부터의 自由) 平均餘命 體力
教 育 狀 態 (精神的 發達水準)	文盲率 教育水準 教育의 適合性(人力需要에 대한) 雇傭狀態
社 會 狀 態 (社會的 統合水準)	統合 또는 一體感 國民全體 社會階層 家族 參與 國民全體 社會階層 家族

資料 : Jan Drewnowski,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s of Living and Welfare*,
Geneva: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 70. 3, 1970.

모든 統計資料를 社會指標라고 分類할 수 없으며 이러한 統計가 發展狀態를 測定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檢證하는 段階에 놓여 있다³²⁾.

나. OECD의 社會的 關心事

OECD 會員國의 代表는 70年代初에 「社會的 目標을 標準化하여 定義하고 가장 必要한 指標의 體系化와 그 評價에 集中的인 努力을 경주」³³⁾하여 그 結果를 1973년에 「OECD諸國의 公同적인 社會的 關心領域」이란 報告書로 發刊하였다. 이 報告書에 의하면 「社會的 關心

〈表 2〉 OECD의 基本的인 社會的 關心領域

基本的 關心領域	
I. 健康	1. 生涯를 통하여 건강한 生活을 할 可能性 2. 健康을 해쳤을 경우 個人에 대한 打擊
II. 學習에 의한 個人的 能力開發	1. 子女가 自己發展에 필요한 기초知識, 技能 및 價値觀의 習得과 社會의 一員으로서 成功的으로 機能함. 2. 계속적인 自己開發을 위한 機會의 提供과 個人이 그 機會를 利用하는 性向 3. 個人이 自身の 經濟的 發展可能性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知識, 技能 및 伸縮性을 維持 및 發展시켜 희망에 따라 經濟活動에 參與할 수 있음. 4. 學習에 의한 個人的 開發過程에서 個人이 얻는 滿足度 5. 모든 社會階層의 構成員이 福利에 기여한 程度에 相應한 文化的 遺産의 維持 및 發展
III. 雇傭 및 勤勞生活의 質	1. 就業希望者에 대한 雇傭機會 2. 勤勞生活의 質 3. 勤勞生活에 있어서 個人的 滿足
IV. 時間 및 餘暇	1. 時間使用에 實効있는 選擇範圍
V. 財貨와 서비스의 支配力	1. 財貨와 서비스에 대한 個人的 支配力 2. 物質的 貧困에 허덕이는 사람數 3. 財貨와 서비스의 支配力의 分配와 衡平度 4. 民間 및 公共部門의 財貨와 서비스의 質, 選擇範圍 및 確保容易度 5. 經濟的 障害에 대한 個人 및 家族의 保護
VI. 物的 環境	1. 住宅狀態 2. 有害 및 不快한 汚染原因에 露出된 人口 3. 環境의 管理 및 保全에 의한 國民의 惠澤
VII. 個人的 安全과 法의 執行	1. 個人이 입은 暴力 및 괴롭힘에 의한 被害 2. 法執行上·公正성과 人道主義的 配慮 3. 法執行에 대한 信賴度
VIII. 社會的 機會와 參與	1. 社會的 不平等度 2. 地域社會生活, 組織 및 意思決定에 參與할 機會

32) Donald McGranahan, Eduardo Pizarro and Claude Richard, "Methodological Problems in Selection and Analysi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Indicators", discussion paper submitted to the Expert Group Meeting, pp.20~25.

33)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前掲書, p.7.

事」란 確認되어 定義할 수 있는 熱望 또는 福利에, 手段이나 間接的인 意味를 갖는 것과 對稱되어 福利에 基本的이며 直接的인 重要性을 갖는 관심을 意味하고 있다.

〈表 2〉와 같이 社會的 關心事는 保健에서 時間 및 餘暇, 學習을 통한 個人發展에서 社會的 機會와 參與 等に 이르는 8個 分野로 分類되고 이는 다시 24가지 基本的인 社會的 關心事로 구분되고 14개의 基本的關心事는 하나 이상의 獨立的인 補充的 關心事(subconcerns)를 수반한다. 이러한 補充的 關心事는 基本的 關心事를 包括하지 못한다³⁴⁾. 여기에 規定된 補充的 關心事는 모두가 바로 統計的 表現을 취할 수 없어 보다 細分된 規定을 必要로 한다. OECD의 接近이 지닌 하나의 특징은 UNRISD의 體系와 比較하여 OECD 會員國의 高度한 發展狀態에 관련되고 또 意味가 있는 主觀的 指標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³⁵⁾. 또한 指標體系는 位階로서의 構造를 갖추고 있으나 이 體系가 勸告하고 있는 補充的 關心事が 社會的 目標과 基本的 社會關心事와 有意하고 有効하게 관련지어졌는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문을 提起할 수 있다. 그러나 OECD 會員國의 實情을 前提한 補充的 關心

事를 選定하는 데 있어서 不完全한 社會科學에 있어서 극단론을 피하고 普遍性 있는 理論(middle range theories)을 반영한 努力의 痕跡이 엿보인다.

OECD의 體系를 採擇하여 發展시킨 代表的인 것은 日本과 필리핀을 들 수 있다³⁶⁾. 日本의 社會指標는 指標體系의 윤곽과 構造가 OECD의 그것에 類似點이 많으나 日本指標에 包含된 많은 指標가 그 나라의 特有한 與件과 關心事를 반영하려는 意圖的 努力을 나타내고 있으며 OECD의 體系를 擴大하여 보다 完全한 指標體系로서 擴大하려고 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日本은 OECD의 指標體系를 概念的으로나 實證的으로 한 나라에 처음 適用한 事例라고 하겠다.

近年에 있어서 發展狀態의 測定을 試圖한 필리핀에 있어서의 努力도 日本體系에 比하여 대단히 單純한 分類와 細分化의 形態를 취하나 本質的으로 OECD의 接近과 類似하다. 필리핀의 統計當局에 의하여 아직도 採擇되지 아니한 필리핀 專門家에 의해 建議된 指標體系는 9개의 領域과 48개의 指標로서 構成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實驗的인 指標도 包含되어 있다. 이 指標體系는 開發途上國의 獨特한 必要를 반영함과 同時에 이에 대한 研究를 하는 期間의 特有한 時代的 背景에 相當한 影響을 받고 있다³⁷⁾.

다. UN의 社會·人口統計體系

SSDS(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는 社會指標에 關한 研究事業의 結果로서 建議된 體系는 아니나 「스톤」에 의한 이 體系는 社會指標로서 전용될 수 있는 有用한 社會·人口統計를 총망라하여 規定하였다.

34) OECD, 前掲書, pp.14~17.

35) 勤勞條件에 대한 滿足度, 教育을 통한 個人의 發展에 대한 滿足度, 醫療의 質, 法執行에 대한 信賴度 등이 主觀的 指標로 포함되어 있다.

36) Research Committee, the Deliberation Council on National Living, *Social Indicators: A Yamistick for Better Living*, Tokyo: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Mahar Mangahas (ed.), *Measuring Philippine Development: Report of the Social Indicators Project*, Manila: The Development Academy of the Philippines, 1976.

37) 필리핀의 社會指標體系는 9個分野에 걸쳐 불과 30個의 指標로서 構成되었으며 그 가운데 시현적인 1人當 純福社生産, 住居適合指數, 政治的 機動性, 政治的 効能指數 등 特異한 것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體系에 選定된 統計系列은 價値判斷에 의 한 것은 아니나 分析과 計劃作成에 있어서의 有用性이 주로 含蓄的인 選定基準이 되어 있다³⁸⁾. 이 體系의 包括性에 비추어 勸告된 體系는 開發途上國이든 先進國이든 어떤 社會에 도 利用될 수 있는 長點을 지니고 있다.

SSDS는 社會指標에 包含될 모든 社會領域, 즉 人口에서 保健, 人力에서 公安에 이르기 까지 見解에 따라서 거의 모든 領域을 包括 하고 있으나 規範的이 아니기 때문에 社會的 價値나 目標을 直接的으로 나타내는 主觀的 指標는 除外되어 있다. 이 體系에 包含된 統計系列은 使用者의 해석을 가미하면 間接的으로 社會的 價値와 目標을 表現하는 것으로 選定, 利用할 수 있다.

SSDS에 따른 統計系列의 包括性은 한 나라의 社會指標體系를 設定하는 過程에서 좋은 出發點이 될 수 있다. 이러한 過程에서 再次 強調하는 것은 一般的인 體系를 參考로 하여 한 나라의 指標體系를 定立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發展段階에 相應하고 또 分析的 資料를 얻는 데 요하는 회임기간을 감안하여 앞으로 豫想되는 社會的 問題를 對備하는 統計系列을 選定하도록 특히 유의할 必要가 있다.

38) United Nations, *Towards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pp.3~4.

39) 主觀的 指標는 應答者에게 다섯가지 區分으로 答할 수 있게 하여 作成하는 것이 보통이나 한 個人이라고 하더라도 問題의 認識度가 時間의 흐름에 따라 變化하며 같은 應答이라도 應答者의 學識과 經驗에 따라 달리 評價될 必要가 있다. 따라서 比較와 解釋에 많은 問題가 있다.

40) 美國은 1974년 이후 3年마다 *Social Indicators*를 발간하고 있고, 英國은 1970年 이후 매년마다 中央統計局에서 *Social Trends*를, 日本의 經濟企劃廳과 國民生活審議會는 1973년부터 *White Paper on National Life*를 발간하고 있다. 프랑스, 西獨, 캐나다, 덴마크 등 先進諸國은 自國에 적절한 社會指標를 公刊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SDS는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에 從事하며 定립된 理論的 指標體系에 統計의 提供과 統計蒐集體系의 效率性과 包括性의 增進에 責任있는 統計 生産者에게 좋은 參考資料가 될 수 있다.

2. 統計的 指標值의 整備

理論的으로 定立된 社會指標體系가 實用化 되려면 計數化될 수 있는 公式으로 定義되고 「크로스 섹션」과 時系列의 統計資料로서 計數化되어야 한다. 社會指標가 되는 統計資料의 源泉(sources)은 물론 政府 및 民間 統計機關에 의하여 實施되는 全數調査, 標本調査 및 報告統計가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規模의 社會統計調査가 社會指標의 計數化를 目的으로 實施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廣範圍하게 定立된 社會指標體系에 計數的 實體를 提供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며 全般的인 統計生産體系가 상당한 質的 水準에 이르기 전에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先進國에 있어서는 社會指標體系에 統計的 實體를 充足시키는 것은 可用資料가 整備되고 豊富하기 때문에 比較의 어렵지 않다. 先進國의 경우 豫想할 수 있는 세가지 通常的인 問題는 統計資料를 再生시키는 「데이터 뱅크」의 設立, 둘째 長期的 發展에 의하여 誘發된 問題를 나타내는 時系列 統計의 缺如, 세째 의미있는 時系列 主觀的 指標의 開發³⁹⁾ 등이다. 이와 같은 問題가 尙存함에도 불구하고 社會指標와 社會的 價値와 目標를 分明하게 연결시키지는 못하였으나 대부분의 先進國은 必要한 社會指標를 編制하여 各國의 社會指標를 發刊하였다⁴⁰⁾.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既存統計資料가 貧弱하고 信憑性이 낮기 때문에 社會指標體系에 統計的 實體를 갖추는 것이 理論的인 體系를 設定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課題이다. McGranahan과 그의 共同研究者가 指摘한 바와 같이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최소한의 有用한 經濟·社會發展指標를 確保하는 것은 克服하기 어려운 問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⁴¹⁾. 만약 體系에 包含된 모든 指標에 意味있는 數值를 附與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問題는 아무리 博識한 理論家라 하더라도 그 想像力을 超越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⁴²⁾.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指標體系에 統計的 實體를 附與하는 데 따르는 問題는 이에 所要되는 資料를 意味있게 創出하는 數值와 記錄을 提供하는 데 있다⁴³⁾. 既存資料의 대단한 缺如에 直面하여 開發途上國으로서의 可用資源의 不足과 既存하는 制度的制約 가운데 새로운 標本調査와 資料수집방법을 導入하지 않으며 실사 導入된다 하더라도 利用上 意味있는 統計系列을 作成하는 데 所要되는 時間을 許容하기에는 開發途上國의 當面問題는 急迫하며 短期的인 急迫性에 쫓기다 보니 長期的인 統計問題는 물론 前提要件의 缺如로서 短期問題를 解決 못하는 惡循環을 招來하고 있다.

이리하여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可用統計

資料의 範圍에서 관련된 社會統計를 拔萃하여 社會指標로서 發刊하는 傾向이 있다⁴⁴⁾. 이러한 傾向은 讀者로 하여금 社會指標에 대한 誤解를 야기시킬 可能性이 있다. 拔萃된 社會統計로 編制된 社會指標體系를 갖추지 못하고 社會的 價値와 目標나 社會的 關心事를 構造的 體系로서 表示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社會統計集의 形態로 發刊된 統計의 分析的 解釋이 添附되지 않고 있다⁴⁵⁾.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社會指標의 理論家가 要求하는 統計와 統計生産者가 提供할 수 있는 統計는 差異가 있어 社會指標의 分析的으로나 政策立案에 利用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問題는 兩者間的 相互理解와 오랜 期間에 걸친 合心된 努力으로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後述할 內容과 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를 統計生産者인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과 理論的 政策的 問題의 研究機關인 本院이 共同作業으로 遂行하였고 理論的으로 提示된 指標體系를 土臺로 既存資料의 再分類와 再集計, 새로운 調査로써 指標의 計數化를 위한 統計生産者의 努力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IV. 社會指標의 活用

社會指標의 活用은 크게 두가지로 分類되는 데, 첫째는 수많은 社會指標系列을 統合하여 生活水準, 또는 福利水準을 計測하려는 努力이며 둘째는 社會指標를 活用하여 發展模型을 擴大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社會指標의 活用은 具體的인 方法과 技法上 水準이 多樣하

41) 前掲書, pp.12~17.

42) 統計上의 問題點: 應答者의 態度, 統計生産者의 質과 意慾, 資料管理 등 長期的 視覺 必要.

43) Edgar S. Dunn, Jr.,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Statistical Systems: Change and Reform*,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4, p.13.

44) 例로서 自由中國 行政院 經濟設計委員會綜合計劃處의 『社會福利指標』(Social Welfare Indicators)를 들 수 있다.

45) 社會指標의 分析的 解釋으로서 代表的인 것은 英國의 이른바 『社會的 趨勢』(social trend)이다.

나 一般적으로 아직도 未完成인 試驗段階에 있고 定說化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試圖은 不完全한 社會科學의 技法으로써 적절히 分析的 目的으로 活用할 수 있기 때문에 活用方法과 方法上的 問題點을 重點으로 考察해 보기로 한다.

1. 福利水準의 測定

社會學者間에 社會指標에서 福利水準을 나타내는 合成值(aggregate measure)를 誘導하려는 것은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의 本質로 보아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社會指標를 어떻게 定義하든 간에 社會指標는 좋은 삶의 質과 改善된 一般福祉에 대한 進步를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指標體系에 包含된 수십개 내지 수백개의 指標系列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같은 方向으로 變化하지 않을 뿐 아니라 變化의 폭도 적지않은 差異가 있다. 이러한 指標가 하나나 몇개의 合成指標로서 整理되지 않는 한 計劃立案者나 政策立案者나 一般에게 魅力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社會指標를 合成하려는 努力이 어느 정도의 成功을 거두려면 社會科學이 오랜 歷史를 통하여 解決하지 못한 두 가지 問題, 즉 不可測한 것(unmeasurables)의 計量化와 加重值의 決定이란 指數의 問題가 理論的, 實證的으로 解決되어야 한다. 이러한 問題는 단적으로 人智의 限界에 대한 挑戰으로서 이러한 果敢한 試圖을 成功如何를 不問하고 아래에 살펴본다.

46) Jan Drewnowski, 前掲書, Chp. II. 참조.

47) 本稿 pp.33~34 참조.

가. UNRISD의 生活水準指數

UNRISD에서 提示한 方法은 前述한 이 研究所의 社會指標體系에 包含된 量的, 質的 指標를 合成하여 加重指數를 만드는 것이다⁴⁶⁾. 다시 말하면 각 指標의 값을 最低値와 最高値로서 限界를 두고 그 範域(range)을 上·中·下의 세가지 決定的 水準으로 구분하여 각 指標를 指數化하였다. 이 指數는 각 指標의 分配係數를 加重值로 하여 調整指標指數를 產出하여 加重值로서는 單純算術(equal weight system)과 連動值(sliding weight system)를 提示하여 綜合指標를 計算한다.

이 方法은 分配側面은 물론 量的, 質的 指數를 綜合하는 데 있어 대단히 果敢하다는 데 注目할 만하다. 이 方法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⁴⁷⁾ UNRISD의 社會指標體系가 갖는 適正성과 包括性의 問題는 고사하고 最少限 두 가지 점에서 說得力이 缺如된다고 하겠다. 첫째 여기의 調整指數와 같이 水準値와 分布値의 乘에 대하여 理論的, 統計的 意味와 解釋을 주기 어렵다. 좋게 解釋하여 水準과 分布에 같은 加重值를 주어 한 數値로서 複合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調整指數는 學術的으로 命名할 수 없는 數値이다. 둘째 物的, 質的, 理論的, 實證的 根據가 없으며 專門家의 見解를 土臺로 한 便法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健康에 대한 合意된 定義가 없는 學問의 現發展狀態에 비추어 健康狀態에 대한 單一指數를 提示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充分히 豫想할 수 있다. 그러나 健康生活水準의 綜合指數를 <表 1>과 같이 病院의 利用可能性, 醫療의 利用可能性, 豫防事業의 水準만으로 表現하는 것은 지나친 單純化라고 하지 않

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생활과福利의綜合的水準을測定하려는 UNRISD의試圖는 하나의接近方法을提示하였다는意義가 있으나 많은追從者를 얻지 못하였다.

나. GNP概念과經濟的福祉의調整推計

經濟學者和社會學者間에生活水準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GNP概念이不適合하다는見解가 날이 갈수록 더하여지고 있다⁴⁸⁾. 財貨와 서비스의市場價格에 의한評價의正當性和價格의國際比較上的問題點은고사하고GNP의福利水準을더하여주는家庭主婦의家事從事, 自家消費生産, 餘暇 등非市場活動을除外하는한편國防費支出, 中間財의生産, 環境의破壞와復舊 등福利와關係없는經濟活動을包含한다. 그러므로GNP概念에서經濟的福祉를推定하기 위하여國民所得에서福利項目을推計·加算하고非福利項目은推計差減하는여러가지方法이試圖된바있다. 이러한GNP를調整한福利水準의再推計는福利 및非福利項目을確認하고이의經濟的價額을推定하는데에서出發하며이러한目的으로社會指標와社會統計가利用된다. 이와같은GNP調整은概念的으로傳統的인GNP概念에서進一步한것이라고하겠으나이러한調整值도貨幣單位로表示되고最終財貨와 서비스 값이含蓄的으로加重值로서利用되었음을留意하여야한다.

48) W. Nordhans & J. Tobin. *Is Economic Growth Obsolete?*,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2; A.W. Sametz,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he Measurement of Economic Growth", E.B. Sheldon and W.E. Moore(eds.), *Indicators of Social Changes, Concepts and Measurement*,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68; Economic Council of Japan, *Measuring Net National Welfare of Japan*, Tokyo, 1973.

經濟的福祉나純國民福祉(net national welfare) 등과 같은概念이通說的으로一般化하는데 있어서解決되어야 할 많은問題點이 남아있다. 未決된問題點을크게 두가지로大別하면, 첫째는現行GNP推計에서 무엇이包含되고 무엇이除外되어야 하느냐고 하는 것과, 둘째로除外, 또는包含할 것의價額을어떻게정하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家庭主婦의家事從事나失業者나不完全失業者의餘暇의機會費用이나市場價格을어떻게評價할 것인가 하는評價上的問題가 있다. 또最終財로서乘用車의價額에서 이를使用하는데에서 오는公害와交通滯症의社會的費用으로서얼마가差減되어야 하는가를決定하는 것이 어려운課題이다. 좀더具體的으로敷衍하면, 公害의 경우GNP에서의差減額을公害防止器機의設置費用으로삼을 것인가, 또는公害에 의한 불쾌에 대한補償이나公害에 의한疾患에서完快하는데所要되는費用까지로 확대할 것인가 하는 데明確한限界와그推定方法이提示되어 있지 않다. 通說的으로經濟的福祉水準을測定하는데GNP에서除外되어야 한다는國防費는우리나라에 있어서特殊한意味가 있기 때문에, 좀더敷衍한다면國防費전액을GNP에서除外하는 것이非現實的이라는 하나의反省이提起된다. 오늘날南北對決이라는 우리의特殊性은例外的이라 하더라도地球上的 어느 나라도國防費를 전혀無視하고存立할 수 없다. 問題는 어떤水準의支出이國防費로서適正하며 어떤國防費目이除外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요컨대GNP概念의調整必要性을모두가認定하나調整을어떤水準에서어떻게하느냐

나에 대한 理論的 實證的 根據가 說得力이 없으며 理論的 正當性과 實際的인 推計에 統計的 根據를 提示하는 데 社會指標과 社會統計가 利用된다.

다. 地域社會의 生活水準 測定

國民經濟社會全般으로서의 生活水準을 測定하려는 UNRISD의 試圖 이외에도 이러한 接近을 地域社會에 適用하려는 努力이 경우에 따라 보다 많은 指標系列을 活用하여, 여러 기관에 의하여 試圖되었다⁴⁹⁾. 近來의 試圖와 UNRISD의 接近方法이 지니는 根本的인 差異點은 위에 指摘한 바와 같이 後者에서 前者보다 훨씬 많은 指數系列을 活用하며 綜合指數를 計算하기 위한 加重值의 決定方法에 상당한 計量的 技法을 利用한다는 점이다. 後者에서 加重值는 要因分析值⁵⁰⁾(factor analysis scores)나 生活水準에 관한 住民의 價値, 認識 및 選好 등의 調查結果 밝혀진 頻度로서 삼고 있다. 이리하여 產出된 地域社會의 生活水準 綜合指數는 全國平均과 다른 地域社會의 綜合指數와 比較分析되고 地域社會의 發展指標로서 活用된다.

이와 같은 地域社會 生活水準의 綜合指數에

49) 그 代表的인 것은 日本의 地方自治團體인 여러 縣에서 대단한 水準의 統計的 技法을 援用하여 地域社會에 있어서 生活水準의 測定이 知事選舉를 意識하여 研究·公表되었다. 그 例로서 宮崎縣, 『總合地域指標』(1974), 兵庫縣, 『新社會指標調查報告書』, 山梨縣, 『山梨縣總合福祉指標』(1975)를 들 수 있다.

50) 이 分析方法이 처음 經濟學에 導入된 것은 I. Adelman 에 의하여 試圖된 바 있다. Irma Adelman and Cynthia T.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A Quantitative Approach*,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

51) 이러한 點은 國際聯合亞太經濟社會委員會(ESCAP)가 핀리핀의 人口基金(Population Center Foundation)이 주최한 「人口趨勢와 發展의 社會的 影響測定에 관한 專門家會議」(1978. 8. 3~9)에서 美國側 參席者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대한 接近方法은 總量化하는 데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적절한 計量的 技法을 援用했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要素分析值의 厚生學的 解釋이 어려울 뿐 아니라 住民의 意識調查結果 나타난 應答의 頻度라는 것은 個人이 아닌 國民全體의 福利構成項目에 限定되기 때문에⁵¹⁾ 個人的 福利를 測定하는 데 不適合하다는 것이다. 또한 一般的인 福利水準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調查의 標本으로서 올바른 調查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도 論難의 餘地가 크다. 그 理由는, 첫째 應答者는 올바른 社會의 目標과 價値를 알거나 生活水準을 評價할 수 있는 力量을 具備하였는가가 疑問視되고, 둘째 應答者의 調查當時의 心理的 狀態에 따라 生活水準의 變動이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똑 같은 質問에 대하여 應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은 國民全般이 認識하는 必要와 成果를 調查하는 方便으로서 利用價値가 있으며 技法上의 改善이 따르면 分析的 道具로서 潛在的 可能性은 있다.

2. 經濟社會模型의 開發

經濟模型을 社會的 變數까지 감안하여 經濟社會模型으로 發展시켜야 할 必要性에 대하여 學者間의 共感은 벌써 오래전부터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利用할 수 있는 社會統計의 在庫와 經濟變數와 社會變數를 연결하는 理論的 貧困은 이 分野의 발전을 沮害 또는 制約하였다. 오늘날과 같이 社會科學에 있어서 實證的 根據가 요청되는 時代에 있어서는 可用資料의 制約은 學問의 發展에 致命的이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가령 어떤 假說을 제시하기는

비교적 쉬우나 이것이 檢證되려면 어느 정도의 精度와 높은 수준의 一貫性이 있는 「크로스 섉손」統計와 상당한 年度의 時系列統計가 있어야 하며 오늘날과 같은 經濟社會의 빠른 變化速度는 假說을 檢證할 資料의 生産을 기다리는 사이에 그 假說이 이미 맞지 않게 될 可能性마저 있다. 특히 學者間에 널리 利用되는 國際比較分析에 필요한 統計는 극히 限定的이며 흔히 各國에서 統計生産에 이용하는 定義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⁵²⁾ 세심한 注意가 필요할 뿐 아니라 利用上 큰 制約이 있다.

가. 經濟的, 社會的 變數의 相關關係分析

이상과 같은 可用資料의 問題에도 불구하고 經濟社會模型을 발전시키려는 새로운 試圖의 前提로서 發展過程에 있어서 經濟的, 社會的

變數의 相關關係를 규명하는 研究가 처음으로 獨立의인 두 研究陣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다. 그 하나는 Fredrick H. Harbison의 研究陣 이고⁵³⁾ 다른 하나는 Irma Adelman과 Cynthia T. Morris이다⁵⁴⁾. 이 두 研究에서 적절한 分析의 計量技法을 찾으려는 意圖의 努力을 많이 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Harbison의 研究팀은 이른바 「탁스노믹」方法(Taxonomic Method)을, Adelman과 Morris는 要因分析(factor analysis)을 각각 利用하였다. 이들의 研究를 통하여 發展에 중요한 經濟的, 社會的 變數와 그렇지 않는 것을 分析의으로 區分하는 成果는 거두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變數間의 因果를 說明하는 決定模型과 發展의 說明模型은 提示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學問的 努力은 社會科學의 새로운 研究分野를 開拓하였고 未來의 研究方向을 提示하였다는 點에서 높이 評價되어야 하겠다.

나. 試圖의 模型의 開發

최근에 經濟社會模型⁵⁵⁾을 開發하려는 努力으로서 注目할 만한 것은 日本學者에 의한 것이다. 그 代表的인 것을 두가지 들면 그 하나는 日本의 經濟企劃廳 綜合計劃局에서 經濟社會基本計劃의 作成作業의 一環으로 總合「시스템」模型(comprehensive system model, 이를 略하여 COSMO라 함)을 開發하였다⁵⁶⁾. COSMO의 骨組를 要約하면 [圖 1]과 같은데, 이 模型의 특징은 1次的으로 産業化에 따르는 環境問題를 正면에서 明示의으로 다루고 있다⁵⁷⁾. 이 模型에 포함된 社會變數로서는 勞動時間, 學生數, 都市人口比率, 社會保障給付, 公害發生量, 公害除去量, 公害防除費用, 公害防止投

52)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 들면 保健指標로서 國際比較에 單位人口當 病床數가 쓰인다. 우리의 경우 病院 病床數가 공식적으로 集計發表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數值로서 國際比較된다. 大統領令 第7960號에 의하여 (1976年 1月 21日) 個人醫院도 病床을 保有할 수 있으며 우리의 起居生活樣式에 의한 病床이 설치되지 아니한 入院室은 전혀 病床數에 包含되지 않는다. 醫院의 病床을 包含하느냐 如何에 따라 1979年 人口 10 萬名當 病床數는 각각 87.8명, 163.9名이다.

53) Fredrick H. Harbison, Joan Maruhnic, and Jane R. Resnick, *Quantitative Analysis of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54) Irma Adelman and Cynthia T.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ment: A Quantitative Approach*,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

55) 여기에서 經濟社會模型이라고 함은, 흔히 經濟社會模型이라는 美名下에 一般均衡模型에 몇가지 되지 않는 社會變數를 넣어 그렇게 號稱하는 것과 區分하여 최소한 [圖 1]과 같이 많은 社會變數를 포함한 것을 意味한다. 우리나라에 대하여 經濟社會模型(socio-economic Model)이 開發된 바 있으나 社會變數로서 熱量攝取量, 住宅, 醫療, 就學率만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經濟社會模型이라고 보지 않는다. Suleiman I. Cohen, "A Social-Economic Development Model: Korean Applications", 서울大學校 經濟研究所, 『經濟論集』, 第XVI卷 第2號, 1977. 6, pp.246~283.

56) Japan, Bureau of Planning Agency, *Project COSMO*, Mimeographed, 1972 參照.

57) 前掲書, 序文 參照.

하며 이러한 뜻에서도 社會指標와 統計體系가
속히 完成되어야 하겠다.

V. 우리나라의 社會指標와 例示的 活用

1.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

社會指標가 우리나라에 紹介된 것은 60年代
後半에 保健社會部에서 社會保障審議會가 設
立되고 여기에 研究機能이 強化되어 社會開發
長期計劃(案)을 立案한 1970年 前後이다⁶⁰⁾.
여기서 採擇된 社會指標體系는 당시 國際聯合
에서 권고한 國際聯合社會開發研究所의 그것
이었다.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UNRISD의
社會指標體系는 매우 單純하고 指標가 舍蓄하
는 以上の 것을 나타내려는 傾向이 있고 社會
指標에 관한 研究가 상대적으로 成熟하지 못
하였던 時期에 비록 政府에 의하여 公式的으
로 採擇되지 아니한 것이었으나 社會開發長期
計劃을 立案하는 過程에 社會指標에 대한 配
慮를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進取的인 努力이
있다고 하겠다.

保健社會部 社會保障審議會에서 社會指標를

60) 社會保障審議會는 研究結果로서 『社會開發基本構想』
(第1輯, 1968), 『社會開發長期計劃』(第2輯, 1970),
『社會開發部門別計劃案』(第3輯, 1974)을 公刊하였다.

61) 이 協贊研究는 「人口統計改善: 開發計劃作成을 위한
社會經濟指標作成」(Population Statistics Improve-
ment with emphasis on Socio-Economic Indicators
for Development Planning)으로서 人口, 所得·消
費, 雇傭·人力, 教育, 保健, 住宅·環境, 社會, 公
安 등 8개 부문에 걸쳐 國內外專門家가 參與하여 1978
년까지 계속되었다.

62) 이 點에 대하여는 그 例示的인 것으로 p.81과 p.90의
脚註 참조.

社會開發計劃作成의 目的으로 利用한 以後 公
共機關에 의한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는 우리
나라에서 별로 進展을 보지 못하다가 1975年
10월부터 國際聯合人口活動基金(UN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의 支援으로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과 韓國開發研究院의 共同研究課題
로서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가 관련 分野의 專
門家에 의한 協贊研究로서 遂行되었다⁶¹⁾. 이
共同研究에서 특히 強調된 것은 우리의 現實
的 與件과 可用資料의 制約을 감안하고 開發
計劃作成에 필요한 資料系列을 우선적으로 指
標體系에 包含시켰다는 것이다.

作業過程에 있어서는 먼저 國際機關과 重要
國家에서 發刊한 社會指標의 類型을 검토하여
社會心理學者로서 主觀的 指標의 한 權威者의
諮問을 얻었으나 客觀的 指標에서 소요되는
統計系列도 그 信憑性和 可用性이 問題視되는
것이 많은 現實的 與件을 감안하여 主觀的 指
標는 社會指標를 위한 特別調查에서 實踐하여
앞으로 發展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이
共同研究에 있어서는 社會指標의 指標라는 側
面은 이것을 利用하는 사람의 解釋에 따라 다
르며 특히 開發途上國으로서의 우리나라의 特
殊性이 反映되면 國際比較上에 混亂까지 惹起
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에⁶²⁾ 社會指標體系의
類型을 선별하다가 보니 理論적으로 권고된
體系는 國際聯合의 社會·人口統計體系(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와 類似
點이 많다.

<表 3>과 같이 指標體系를 이루는 分野 또
는 關心領域에 걸쳐 세부적인 指標를 광범위
하고 다양하게 建議하고 既存 센서스와 標本
調査를 再分類, 再集計하여 計數的 뒷받침을
하는 한편 1977년부터 한정적이거나 社會統計

〈表 3〉 韓國의 社會指標體系

I. 人口	1. 人口規模의 變動 2. 人口構造의 分布
II. 所得·消費	1. 所得水準 2. 所得分配 3. 消費支出 4. 貯蓄水準
III. 雇傭·人力	1. 雇傭構造 2. 勤勞時間 3. 安全保護 4. 職業選擇의 移動 5. 勤勞者 自己開發 6. 非差別待遇 7. 勞使關係
IV. 教育	1. 教育機會의 擴大 2. 教育機會의 均等 3. 教育資源의 擴保의 活用 4. 教育效果
V. 保健	1. 死亡 및 疾病 2. 體位, 體力 3. 營養狀態 4. 保健醫療 서비스 5. 醫療人力 및 施設
VI. 住宅·環境	1. 住居狀態 2. 環境公害 3. 災害
VII. 社會	
가. 家族	1. 家族形成 및 解體 2. 家族構造의 安定性 3. 家族關係의 圓滑化 4. 家族의 生活水準向上
나. 社會保障 및 公的扶助	1. 保險加入 및 適用의 普遍化 2. 保險支給水準의 合理化 및 保險費負擔의 公正化 3. 社會的 機能의 회복과 心理的 滿足 4. 要保護對象者의 전수보호 5. 公的扶助事業費의 確保의 保護의 質的向上 6. 社會的 機能의 회복과 心理的 滿足
다. 餘暇	1. 餘暇 2. 餘暇活動
VIII. 公安	1. 犯罪로부터의 安全 2. 保安能力 3. 法的 公正性과 人道的 考慮 4. 安寧感

資料：經濟企劃院·韓國開發研究院, 『韓國의 社會指標(解說編)』, 1978.

調査를 실시하여 指標의 計數化와 完成에 많은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社會指標에 관한 經濟企劃院과 韓國開發研究院의 共同研究에서 무엇보다도 特記할 것은 다른 開發途上國에서의 試圖와는 달리 中央統計機關의 활발한 參與가 있었고 우리의 風土가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를 활발히 하는 데 制約적이었으나 專門家에 의한 建議가 統計當局에 의하여 採擇되어 國際聯合人口活動基金에 의한 研究支援이 끝남과 동시에 政策事業으로서 계속 推進되고 있으며⁶³⁾ 建議된 社會指標體系를 完成하려고 統計當局이 부단한 努力을 傾注한다는 事實이다⁶⁴⁾. 世界的인 社會指標運動의 흐름을 타고 많은 開發途上國에서 이에 관한 研究가 있었으나 그 實効를 보지 못한 중요한 理由의 하나는 統計生産者의 無關心 내지는 被動的 役割에 基因한 것이다.

근년에 있어서는 여러 學術 및 研究機關에서 社會指標에 관한 學術活動이 活潑히 展開

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分野의 學問的 發展을 위해 甚多幸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 代表的인 것으로 서울大學校 人口 및 發展問題研究所에서는 分析的인 英國型 社會趨勢(social trends), 社會科學研究所에서는 主觀的 삶의 質,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는 指標體系의 一部인 文化指標에 관한 研究가 計劃 또는 推進 중에 있으며 今年 9월에 UN ESCO 韓國委員會는 파리의 本部和 東京의 UN 大學校와 提携하여 서울에서 이에 관한 國際學術會議를 開催할 豫定이어서 앞으로 社會指標에 관한 보다 활발한 研究가 豫想된다.

2. 社會指標의 分析的 活用 : 몇 가지 例示

전술한 바와 같은 正교한 經濟·社會模型이라 하더라도 先進 諸國의 分析的 技法의 導入과 電算機의 普及으로 精度는 다소 문제가 되더라도 一貫性있는 많은 時系列資料가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研究課題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의 問題는 오랜 研鑽을 통한 吟蓄의인 理論的 假說을 전제로 하여 模型을 어떻게 規定(specification)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現存하는 社會指標系列은 그 種類에 있어서 貧弱하고 그 精度도 극히 疑問스러운 뿐 아니라 때로는 같은 것을 나타내는 資料가 그 源泉에 따라 그 絕對値는 물론 時系列의 趨勢까지도 다른 경우가 있다⁶⁵⁾. 따라서 앞으로 社會指標에 소용되는 基礎統計資料의 量的·質的 改善이 없는 限 의미있는 經濟社會模型의 開發은 現實的으로 거의 不可能하다⁶⁶⁾.

이와 같은 統計資料의 現實的 與件 아래 社會指標의 活用을 우리 現實에 적용하여 分析

63) 이 課題는 經濟企劃院 統計調查局 基準課의 所管業務이며 共同研究結果 1978년의 『韓國의 社會指標(試案)』이 發刊된 이후 每年 試案이 아닌 『韓國의 社會指標』가 發刊되고 있다.

64) 建議된 우리나라의 社會指標는 350個인바 이 建議案을 토대로 1978년에는 試案으로 114個 指標를 完成, 1979년에 128個 指標를, 1980년에는 151個 指標를 作成·公表하였다.

65) 이러한 例로서 醫療人統計를 들 수 있다. 保社部의 公式統計로서 醫師數는 免許基準과 登錄基準으로 두 가지 數字가 나오나 前者는 外國에 進出한 醫師나 保健醫療에 종사하지 않는 醫師까지 包含하여 過大評價되고 後者는 登錄未畢에 대한 罰則이 實効性이 없기 때문에 극히 過少評價되어 保健醫療에 종사하는 醫師數를 推定의 推定없이 알 수가 없다.

66) 基礎統計의 重要性을 力說하는 사람의 立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극히 단순한 經濟模型으로서 生産函數도 有意한 것을 推定할 수 있는 統計의 基盤이 없다. 그 理由는 增加하는 勞動力과 資本「스톡」資料가 있어 가장 一貫性있는 國民總生産資料와 相關시킬 수 있으나 前者의 두가지 系列은 産業大分類만으로 檢討해 보면 資料上의 問題가 分明하고 그것을 利用하여 推定한 計量式的 常數는 도저히 現實을 週然 誤差의 範圍에서 說明한다고 할 수 없다.

의므로 例示한다는 것은 指標活用の 극히 一部分에 불과하다. 그러나 각 分野에서 指標 하나씩을 選定하여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時間의 흐름에 따라 우리 社會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理由를 深層分析함으로써 보다 効率的이며 적절한 政策處方の 可能性을 提示하는 것은 별 意味가 없는 計量分析에 耽溺되는 傾向이 강한 計量時代에 좋은 解毒劑가 될 것으로 確信하기 때문이다.

가. 不安定雇傭率과 勤勞者福利

宿命的으로 일을 하여야 하는 人間에게 勤勞條件의 改善은 중요한 삶의 質의 構成要件이 된다. 실로 經濟活動人口에게 주어진 時間중 최소 1/3과 活動時間의 대부분이 職場生活에 充當된다. 이러한 職場生活의 중요성에 비추어 勤勞條件의 改善이란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과 直結된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社會的 關心領域으로서 勤勞條件은 賃金水準, 勤勞時間, 職務에 대한 滿足度 및 職場의 장래성, 職業의 安定性 등의 指標로서 표시된다. 또한 이러한 勤勞條件은 어떤 經濟社會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여건, 特定時點에 있어서 制度的 理由로 인하여 經濟社會發展段階에 相應하지 않게 나쁜 상태로 놓일 수 있다⁶⁷⁾.

1) 不安定雇傭率의 意味와 趨勢

不安定雇傭率은 文字 그대로 職場의 永久性이 保障되어 있지 않은 不安定한 勞動力으로

67) 筆者의 해석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不安定雇傭率은 歷史的으로 日帝下에 日本人이 우리 民族을 身分的으로 差別하기 위한 嚮託制度로서 導入되었고, 解放後 오 늘날까지 이 制度가 尙存하는 것은 退職金, 賞與金, 附加給付 등에서 差別하여 人件費를 節減할 수 있고 請託에 의한 人事에 대하여 後에 減員이 가능하기 때문에 定着된 것이 아닌가 본다.

서 全被傭者에 대한 臨時雇와 日雇인 勤勞者의 比率이다. 이러한 不安定雇傭率은 원래 근로조건에 관한 社會指標로 이용되는 것이외에도 景氣의 先行指標로서 利用되어 왔다. 好況이 예상될 때는 不安定雇傭率이 먼저 증가하면서 失業率이 낮아지고 不況이 올 때에는 不安定雇傭率이 낮아지면서 失業率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比率의 不安定은 就業과 失業의 限界에서 流動的인 就業狀態를 意味하며 就業時間을 기준으로 보면 이 勤勞階層의 適當平均勤勞時間은 40時間에 未達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70年代의 日本과 自由中國의 경우 不安定雇傭率은 7~8%에 이르고 있으며 西歐先進國의 경우에는 景氣에 따라 5% 内外에 不過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比率은 <表 4>와 같이 景氣變動에 따른 起伏은 다소 있

<表 4> 不安定雇傭率¹⁾

(단위 : %)

	不安定雇傭率	男 子	女 子
1963	61.0	57.9	70.7
1964	61.3	58.0	72.1
1965	58.3	55.6	67.2
1966	54.9	51.7	65.3
1967	51.1	48.3	59.7
1968	47.8	44.5	57.3
1969	43.3	40.3	51.1
1970	40.9	37.1	51.3
1971	41.3	37.0	53.0
1972	44.9	41.9	53.1
1973	50.4	47.3	58.4
1974	45.6	42.0	55.3
1975	45.9	42.9	54.2
1976	42.9	39.5	51.5
1977	42.7	40.0	49.4
1978	39.6	37.7	43.9
1979	38.9	36.1	45.0
1980	35.7	31.8	44.0

註 : 1) 不安定雇傭率 = (臨時雇 + 日雇) / 被傭者 × 100
資料 :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나 景氣指標로서의 意味가 없으며 經濟成長에 따라 減少趨勢를 나타내기는 하나 近年에 있어서도 대단히 높은 40%에 이르고 있다. 특히 注目되는 것은 女性勤勞者의 不安定雇傭率이 男性勤勞者의 그것보다 1977年 以前에 10%「포인트」이상 높다는 점이며 1980年 現在까지도 女性勤勞者의 不安定雇傭率은 44.0%라는 것이다. 또 한가지 特異한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不安定雇傭者의 就業時間이 安定雇傭者에 비하여 짧거나 短期的인 것이 아니다. 다만 이들은 勤務處의 職制上 日雇나 臨時雇로 採用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2) 勤勞者福利와 職務上責任에 대한 意味

물론 이러한 制度的 遺物은 求職難으로 失業率이 높았던 60年代 初까지는 看過하여도 될 사항이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被傭者의 約 4割이 職場에서 身分保障을 받지 못하고 職場內部에서 被傭者間에 差等待遇를 받는 日雇나 臨時職으로 있다는 것은 人事管理의 原則에 어긋나며 그들의 士氣나 職務에 대한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勤勞階層의 收益은 等한시되기 쉬우며 이들에 대한 人事措置도 部·課長級의 中間經營階層 이하에서 결정되므로 經營組織의 最一線을 담당하는 人力의 重要性이 輕視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勤勞女性의 不安定就業率이 높다는 것은 職場生活에서 그들이 얼마나 不利한 立場에 대하여 不當한 戲弄을 당할 가능성마저 있는가를 端的으로 示唆하고 있다.

68) 公務員中 臨時雇 및 日雇者數에 관한 統計는 公表되고 있지 않으나 一例를 들어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의 경우 1981年 5月 현재 1,131名中 17.4%에 해당하는 197명이 日雇者이며, 이들에 의하여서도 正規職公務員과 함께 우리나라의 統計資料는 作成되고 있다.

근래에 官廳에 근무하는 日雇者 및 臨時雇傭者에게도 賞與金, 年次手當, 退職金이 지급되고 있으나 몇년전만 하더라도 給與面에서도 差別待遇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 問題視되는 것은 中央 및 地方官署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복지에 直結되는 公務가 이러한 人力에 의하여 代行된다는 것이다⁶⁸⁾. 給與水準이 未洽하고 身分上 保障이 없는 가운데 公益을 위해 盡力하고 行政上의 責任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差異는 있으나 民間部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勤勞條件 또는 勞使關係의 改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方案이 提示되고 있다. 즉 論者에 따라 生活給을 위한 最低賃金制度의 導入, 作業環境의 改善, 근로자의 株式保有와 經營參與, 근로시간의 短縮 등 여러가지 見解가 疎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적 與件 아래 經濟的 負擔이 追加되지 않고 制度的인 改善만으로 손쉽게 근로자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改善方案의 하나가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를 遂行하는 가운데 副産物로서 浮刻된 하나의 좋은 예이다.

나. 期待教育水準과 그 政策的 意味

아시아에 있어서 經濟成長의 成功事例는 역사적으로 中國文化圈에 있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국가의 공통적인 두가지 특징은, 첫째 근면한 職業倫理(work ethic)와, 둘째 강한 教育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60年代 이후의 高度成長을 부지런하고 풍부한 教育받은 人力이 主導한 것은 아무

도否認할 수 없고 오늘날 教育, 특히 大學教育이 國民의 커다란 關心事이며 가장 큰 社會的 問題로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着眼하여 1977年 3월에 社會統計特別調查를 實施하는 가운데 主觀的 指標의 開發可能性의 打診과 高等教育의 期待水準을 파악할 목적으로 “귀하는 장차 자녀들을 어느 정도까지 教育시킬 계획입니까?”라는 設問을 포함시켰다. 이 설문의 특색은 아무런 조건없이 던진 設問(an open question)이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設問을 통하여 國民이 기대하고 있는 教育水準이 어느 정도이며 그 비율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고, 政策的으로 國民이 지닌 高等教育의 潛在需要를 推定하는 基礎資料로 利用된다.

1) 子女에 대한 期待教育水準

1977年 當時 經濟活動人口調查 標本家口の 절반인 1萬餘家口를 대상으로 한 調查結果를 集計한 것이 <表 5>로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높은 教育熱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表 5> 家口主의 子女에 대한 期待教育水準(1977)

(단위 : %)

	아 들		딸	
	高校	大學	高校	大學
全 國	35.0	54.1	40.5	32.6
家口主 教育程度				
無 學	52.7	26.4	41.3	9.7
國 卒	48.3	39.4	48.0	17.4
中 卒	30.7	64.3	48.9	35.0
高 卒	16.8	78.0	37.2	53.8
初大·大卒 以上	2.9	95.2	11.1	85.5
家口主 職業				
農·林·畜產業	11.5	30.2	45.3	10.5
販賣·서비스職	27.7	67.1	44.6	40.9
專門·行政管理職	5.4	92.0	15.4	78.3

資料 : 經濟企劃院·韓國開發研究院, 社會統計調查(1977)의 結果임.

아들의 경우 家口主의 89.1%가 高等學校이상의 教育을, 딸의 경우 73.2%가 같은 수준의 教育을 각각 기대하고 있다. 大學의 경우 아들은 54.1%, 딸은 32.6%가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어 高等教育에 대한 男兒選好傾向이 뚜렷하다.

子女에 대한 期待教育水準은 家口主의 教育수준과 職業을 기준으로 하면 家口主의 教育水準이 높으면 높을수록 子女에 대한 期待教育水準도 높고 家口主의 職業이 높은 教育수준을 요하는 職種일수록 期待教育水準도 높다. 反面 男兒에 대한 高等教育 選好傾向은 學歷水準이 낮거나 일반적으로 낮은 教育수준을 요하는 職業에 종사하는 家口主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國卒과 無學의 家口主는 각각 아들 39.4%와 딸 17.4%, 아들 26.4%와 딸 9.7%를 大學에 진학시킬 것을 희망한 데 비하여 大學을 卒業한 家口主는 아들 95.2%와 딸 85.5%에 대하여 大學教育을 희망하고 있다.

職業別로 農林畜產業에 종사하는 家口主는 아들의 경우 30.2%, 딸의 경우 10.5%가 大學에 진학할 것을 기대하나 專門·技術 및 行政管理職에 종사하는 家口主의 92.0%와 78.3%가 각각 아들과 딸의 大學教育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後世代의 教育수준이 先世代의 教育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家口主의 教育수준이나 職位의 高下가 子女教育의 支援能力과 正의 相關關係를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資料는 世代間의 所得分配와 社會的 機動性, 教育을 통한 人的資源形成에 대한 世代間의 力學關係, 文化的 相續說 등에 대한 計數的인

傍證이라고 할 수 있다.

2) 期待教育水準의 政策的 意味

國民이 지니는 期待教育水準은 국민이 지니는 하나의 價値와 目標라고 하겠다. 이러한 수준의 期待教育은 반드시 바람직한 適正水準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前者의 경우에는 이를 充足시켜 주어야 하며 後者の 경우 適正水準을 밝히고 올바른 價値觀을 갖도록 국민에 대한 說得을 필요로 한다. 어떠한 경우라 해도 국민이 主觀的으로 認知하는 必要가 어느 수준이며 현실적으로 充足시키고 있는 水準에 비하여 未充足된 필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計劃作成過程이나 政策樹立過程에서 目標變數로서 利用되며 이에 따라 資金調達計劃, 人力需給計劃 등이 작성된다.

調査에 나타난 期待教育水準이 오늘날 우리의 經濟社會發展段階나 長短期 人力需給展望에 적정한 수준인지의 與否는 여기서 시도하는 分析 밖의 영역이므로 論議의 對象으로 삼지 않고 期待教育水準을 充足시킨다는 전제 아래 未充足된 必要가 얼마나 되는가를 試算해 보기로 한다. 1977年 현재 關聯資料를 이용하여 高等學校와 大學校의 男女 定員擴大의 필요한 上限을 試算하면 <表 6>과 같다. 表의 第2行에 나타난 卒業者 進學率은 그 學歷水準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表 6> 未充足된 教育需要(1977)

(단위: %)

	男		女	
	高校	大學	高校	大學
期待教育水準 (1)	89.1	54.1	73.2	32.6
卒業者 進學率 (2)	79.84	22.24	67.60	29.68
年齡階層進學率 (3)	68.33	15.20	45.03	13.36
未充足潛在需要(1)-(3)	20.77	38.90	28.17	19.24

特別調査의 調査結果와 平面的인 比較를 위하여 該當年齡階層進學率을 各級學校 以下の 進學率을 乘하여 구하면 第3行과 같다. 이를 學校級別 期待教育水準과 比較하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大學教育—특히 남자의 경우—이다. 얼마나 국민의 기대에 未洽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再修生이 社會問題로서 얼마나 심각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현실적으로 男子의 대학교육의 기회가 기대수준에 비해 28%에 不過하고, 女子의 大學教育機會가 13.4% 밖에 充足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人口의 年齡構造에 비추어 최소한 앞으로 약 10년간은 계속적으로 大學適齡人口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高等教育機關의 定員調整이 必要하다. 高等教育에 대한 높은 期待水準의 醇化는 나타난 能力이나 潛在力에 비하여 감당할 수 없는 大學教育을 子女에게 기대하는 것이 父母나 子女에게 바람직스럽지 못함을 說得만 시킬 것이 아니라 學歷間 賃金隔差의 완화, 生의 週期에 따른 生活給의 給與, 學歷給이 아닌 能力給 등 給與制度和 高等教育需要에 대한 不當한 刺戟的 要因도 除去되어야 할 것이다.

다. 男女의 婚姻狀態와 女性의 地位

成年에 이르면 사람은 生의 週期에 따라 成婚하게 되고 불행하게 死別하거나 不和로 離婚하기도 한다. 成人男女가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어 子女를 두어 잘 養育하면서 원만한 家庭生活를 영위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社會적으로 잘사는 중요한 하나의 要件이 됨은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西歐先進國에서

두드러진 社會現象은 離婚에 의한 가정의 消滅이 死別에 의한 그것보다 많고 이에 따라 子女의 家庭教育과 情緒發育이 올바르게 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貞操觀念이 희박한 가운데 離婚可能性을 두려워한 나머지 젊은 男女가 未婚狀態에서 試驗夫婦(experimental couple)로서 생활하는 事例가 허다하여 가정의 形成이 늦거나 未婚狀態로서 平生을 지내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結婚行態에 대하여 어떤 상태가 가장 행복하다거나 바람직스럽다고 價値判斷을 내리기가 어려우나 婚姻狀態別 人口統計으로써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나 社會的行態의 변화, 때로는 社會的 問題를 추적할 수 있다.

1) 婚姻狀態別 人口比率의 변화

우리나라에 있어서 1955년 이후 인구센서스 年度에 있어서 혼인상태별 人口比率과 그 變化는 <表 7>과 같다. 男女의 有配偶者比率이 1955년에 각각 63.6%와 63.3%에서 1975년에 각각 57.0%와 57.1%로 감소된 것은 결혼연령이 늦어진 것과 결혼연령인 15歲 미만의 未婚人口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이 表에서 알 수 있는 뚜렷한 경향은 死別獨身者나 이혼한 사람의 再婚傾向이 未婚者나 有配偶者의 상대적 증가를 감안한다 해도 男子는 1955年 傾 이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국민이 夫婦가 家庭形成 또는 家庭生活의 중심을 삼고 있는 건전한 생활태도의 한 증거가 된다.

<表 7> 婚姻狀態別 人口比率

(단위 : %)

	有 配 偶		未 婚		死 別		離 婚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1955	63.6	63.3	31.5	18.5	3.9	16.7	1.0	1.5
1960	59.9	60.4	36.3	22.6	3.0	15.6	0.6	0.9
1970	60.0	59.1	37.4	24.9	2.4	15.2	0.4	0.9
1975	57.0	57.1	40.1	28.5	1.9	13.8	0.3	0.7

資料 : 經濟企劃院, 『總人口 및 住宅調查報告』.

<表 8> 婚姻狀態別 人口比率의 國別比較(1970)

(단위 : %)

	有 配 偶		未 婚		死 別		離 婚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韓 國	60.0	59.1	37.4	24.9	2.4	15.2	0.4	0.9
臺 灣	53.2	61.8	41.2	28.4	2.9	8.9	2.7	0.8
美 國	66.2	60.5	26.4	20.6	3.1	12.7	4.3	6.3
日 本	64.1	60.2	32.4	24.9	2.7	12.8	0.9	2.1

註 : UN의 人口統計作成慣例에 따라 結婚狀態別人口比率은 15歲 이상의 男女를 分別한 有配偶者, 未婚者, 死別者, 離婚者의 比率에 따라 分類·集計한 것이기 때문에 結婚年齡人口中에 누가 離婚 또는 死別하고 再婚하였는지 그리고 몇번이나 그러한 경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示唆하는 바가 없음.

資料 : UN, *Demographic Statistics Yearbook*.

어느 나라에서나 女性의 平均壽命이 남자보다 길기 때문에 死別女性人口比率은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死別男性人口比率보다 훨씬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死別女性人口比率은 1970年頃부터 감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외국에 비하여 특히 人口의 年齡構造가 비슷한 臺灣에 비교하여 대단히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우리나라의 死別女性人口比率은 물론 日帝下의 強制動員, 6.25 動亂 등 역사적인 이유로 높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 가운데 改嫁를 敬遠視하고 再婚男性의 處女選好傾向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政策的 意義

이상과 같은 혼인상태별 人口比率에서 몇가지 政策的 意義를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離婚한 사람의 比率이 외국에 비하여 아주 낮기 때문에 家庭分裂과 이에 따르는 靑少年問題는 重要的 社會問題로서 浮刻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夫婦中心으로 家庭을 形成하는 價值觀은 길이 보존하도록 유의되어야 하며 앞으로 이 指標의 變化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警戒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다.

둘째, 再婚과 就業機會가 극히 制約的이며

勞働法上의 退職金制度 이외에는 國民福祉年金制度가 定立되어 있지 않고 各種 社會保險制度가 完備되어 있지 못한 現實與件 아래 死別女性家口主와 그 扶養家族, 특히 부양가족 중에 경제활동연령에 도달하거나 능력을 지닌 가구원이 없을 경우 生計에 상당한 곤란과 위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은 現存하는 研究結果로써 규명된 우리나라 絶對 貧困의 경제사회적 특징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으며⁶⁹⁾ 老齡階層과 더불어 장차 貧困階層의 증가를 誘發하는 兩大社會階層을 이룰 것으로 展望된다⁷⁰⁾. 그러므로 연령계층별 死亡率의 蓋然性和 각종 사고로 불행을 당한 遺族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하루속히 도입되고 한 세대의 不幸이 다음 世代에 世襲되어 世代間 社會的 機動性(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에 制約이 加해지지 않는, 모든 국민에게 능력과 노력에 따라 같은 機會가 주어지는 健全한 社會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근래에 女性의 社會적 위치를 향상시키려는 여러가지 노력이 傾注되고 있다. 中流의 生活水準 이상의 女性이 男性이 갖는 여러가지 機會를 같이 갖는다는 것도 女性의 社會的 位置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큰 意義가 있으나 死別 및 離婚女性과 같은 不遇한 階層이 보호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나 社會慣習의 造成도 여성 전체의 社會적 지위의 향상에 戰略的 價值를 지닌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상당한 수의 母子家口가 여러가지 경제적·사회적·개인적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지 않게 하는 것을 女性의 社會적 地位向上을 위한 중요한 課題로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死別 男性으로부터의 再婚要請時에 불가피한 事由

69)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研究』, 1979 여름호, pp.23~26. 1974년에 있어서 우리나라 貧困家口中 家口主가 女性인 比率이 都市 22%, 農村 18%로 나타나고 있으며, 家口主配偶關係面에서도 死別인 경우가 都市 16%, 農村 17%를 나타내고 있다. 鄭慶均, 「絶對貧困과 生活保護」, 朱鶴中 編, 『韓國의 所得分配과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研究院 1979, pp.433~443.

70) 韓國開發研究院, 「所得分配의 基本政策」,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 1977. 12, pp.229~233, 第14章 第3節.

없이 未婚女性이 이에 응한다는 것을 우리나라의 封建遺産의 하나인 女必從夫와 男性優位를 助長하는 自繩自縛의 結果를 초래하므로 여성 스스로가 自救的 措置를 강구하는 움직임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V. 要約 및 結論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의 成果를 概括하는 課題는 이것이 아직 進化過程에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 社會指標의 定義와 目的, 概念的 骨組의 定立, 統計的 內容의 提供, 分析的 目的의 活用 등 一連의 연속된 作業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아직도 完成되는 過程에 있으며, 이러한 社會指標의 여러 側面이 갖는 相互關聯性도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는 社會의 目標와 價値 또는 國民福利로의 進歩를 測定한다는 지나치게 理想的인 問題意識에서 出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른 바 世界的인 「社會指標運動」(social indicators movement)의 宿命的인 終着은 分明하고 明確하다. 이 運動의 崇高한 理念은 經濟的 表現은 고사하고 概念的으로나 마 사람의 福利와 삶의 質을 規定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지닌 學術的 연장의 制約 때문에 곧 混迷한 荒海에서 헤매이는 現實에 直面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混亂은 결코 指標運動에 관련된 專門家가 努力을 기울여 하여서 아니라 오늘날 人類의 學問的인 發達狀態와 그 限界에서 基因한 것이다. 反面에 福利나 삶의 質을 規定하는 사람의 慾求는 너무나도 複雜多樣하여 쉽게 定義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 있어서 사람의 必要를 決定하는 要因을 規定하는 理論的 統計的 根據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社會指標의 理論的 體系까지도 그 信憑性과 說得力이 더욱 沮害된다.

이러한 社會指標의 本質的 制約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社會指標에 관한 經濟企劃院과의 共同研究에 있어서는 價値判斷的인 部分은 어떤 特定的 分野를 研究하는 이의 分析의 解釋에 맡기기로 하고 外國의 여러 機關에서 提示한 模型을 광범위하게 參考하여 우리의 社會的 與件과 現實에 비추어 共通分母를 抽出함으로써 韓國의 社會指標體系를 定立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體系는 指標라는 用語가 갖는 語義에 보다는 指標의 實體인 統計에 보다 充實한 데 그 特徵이 있다. 또 하나 共同研究에서 留意한 것은 우리의 統計與件의 現實을 감안하여 主觀的 指標는 意識적으로 피하도록 努力하였으며 그 重要性은 認定하여 將來에 開發할 指標 또는 實驗的인 指標로서 包含시켰다. 앞으로 體系的인 國民意識調查나 選好 및 満足度調查가 실시되면 主觀的 指標의 重要性이 더욱 커질 것이나 이 研究의 優先順位는 우리의 빈약한 社會統計의 改善에 두었다.

社會指標를 定立하는 理論的 根據와 그 實體를 이루는 統計 및 計量的 證據가 擴大되는 데 따라 社會指標의 活用範圍는 대폭 擴張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福利水準의 直接的, 間接的 測定이나 經濟·社會의 統合模型의 開發은 아직도 定說化될 정도의 進展은 없다 하더라도 社會科學研究의 進路와 可能性을 示唆하기에는 充分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統計與件 아래에서는 이상과 같은 體系的 指標活用은 現實的으로

어려우며 이는 세삼 그 前提로서 統計整備의 必要性을 實感하게 한다. 많은 統計上 缺如 (statistical gaps)는 政策立案에 있어서나 分析의 目的에 가장 필요한 것부터 選別的인 完成의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은 두말 할 必要가 없다. 그러나 社會指標의 統計的 뒷받침이 體系의 으로 整備되지 않았다고 해서 社會指標의 活用이 전혀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例示한 바와 같이 완전히 整備되지 아니한 個別的인 社會指標라고 하더라도 社會的 問題에 대한 理解와 診斷과 處方을 얻는 데 有用하게 活用할 수 있다. 經濟的, 社會的 現實은 理論經濟學이나 發展理論이 제시하는 작은 數의 變數에 의하여 說明되는 것이 아니며 같은 變數라고 하더라도 先·後進國에서 갖는 意味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現象을 여러가지 變數를 關聯시켜 深層分析할 必要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歷史的, 制度的 要因이 크게 作用하여 先進國의 政策處方이나 이를 度外視한 計量模型에 의한 分析과 豫測이 크게 빚나갈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社會指標에 의한 폭넓은 現象의 吟味는 前者에 대한 解毒劑로서 作用할 수 있다.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가 보다 효율적으로 進展되기 위하여 研究方向의 再定立이 必要하

다. 오늘날까지의 經驗을 토대로 하여 社會指標의 定義와 目的이 概念的 骨組와 統計的 實體를 세우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勘案하여 再檢討되어야 한다. 특히 概念化에서 統計化와 應用에 이르는 각 段階의 操作度를 一貫性있게 높이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많은 努力을 상술한 過程의 흐름에 있어서 약한 部分에 集中시킴으로써 각 部分間의 連繫를 強化시켜야 하겠다.

本質的으로 보아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는 協贊研究(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필요로 한다. 社會指標體系의 각 部門은 그 分野와 이에 관련된 分野의 發展과 寄與에 依存한다. 指數의 問題나 삶의 質의 測定은 統計學者나 그 分野의 專門家에 의하여 적절히 解決되어야 하겠다. 삶의 質을 構成하는 要件 하나 하나가 計劃立案者와 政策立案者와 統計生産者에게 意味있고 有用하게 다시 規定되어야 한다. 또한 社會指標의 각 분야를 設計하는 專門家は 獨立性을 유지하면서 다른 分野의 專門家와 對談을 나누는 가운데 그 分野의 均衡된 發展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社會科學의 새로운 章을 여는 意味에서 社會指標에 관한 研究는 持續, 發展되어 애매한 가시덤불을 없애고 實用的인 果實을 맺도록 복돋아 줘야 하겠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韓國開發研究院, 『韓國의 社會指標(解說編)』, 1978.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79, 1980.
 臺灣行政院 經濟設計委員會, 『社會福利指標』,

1976.
 日本 經濟企劃廳總合計劃局, 『PROJECT CO SMO(案)』, 1973.
 日本 國民生活審議會調查部會(編), 『社會指標

- ：よりよい暮らしへの物さし』, 1974.
- 日本 経済研研センター, 『社会指標體系による
国民生活の計量分析』, 委託調査結果報告
書, 1974.
- 日本 山梨縣企劃調整局・山梨縣福祉指標研究
委員會, 『福祉システムつのアプローチ:
山梨縣総合福祉指標』, 1975.
- , 宮崎縣, 『総合地域指標』, 1974.
- , 宮崎縣, 『県民の満足度と價值意識』,
1976.
- , 兵庫縣, 『新社会指標體系調査報告
書』,
- Adelman, Irma and Cynthia T. Morris,
*Society, Politics and Economic Develop-
ment: A Quantitative Approach*, Balti-
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7.
- Baster, Nancy, "Development Indicators: An
Introductio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Vol. VIII, No. 3, April 1972.
- (ed.), *Measuring Development: The
Role and Adequacy of Development
Indicators*, London: Frank Cass, 1972.
- Bauer, Raymond, A., "Detection and Antici-
pation of Impact: The Nature of the
Task", R.A. Bauer(ed.), *Social Indica-
tors*, Cambridge: MIT Press, 1966.
- Choo, Hakchung, "Social Indicators: Defini-
tion, Purposes and Development", U.N.,
*Measuring the Social Impact of Popula-
tion Trends and Development, Report of
an Expert Group Meeting*, Asian Popula-
tion Studies Series No. 43, ST/ESCAP/
77, pp.35~53.
- , "National Health Data and Infor-
mation System", Chong Kee Park(ed.),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
ment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80.
- Cohen, Suleiman I., "A Social-Economic
Development Model, Korean Application",
서울大學校經濟研研所, 『經濟論集』, 第X
VI卷 第2號, 1977. 6.
- Drewnowski, Jan, *Studies in the Measurement
of Levels of Living and Welfare*, UNR
ISD Report No. 70.3, Geneva, 1970.
- Drewnowski, Jan and Wolf Scott, *The Level
of Living Index*,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Report
No. 4, Geneva, 1966.
- Dunn, Edgar S. Jr.,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Statistical Systems:
Change and Reform*,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4.
- Economic Council of Japan, *Measuring Net
National Welfare of Japan*, Tokyo, 19
73.
- Harbison, Fredrick H., Joan Maruhmic, and
Jane R. Resnick, *Quantitative Analysis
of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Kamrany, N.E. and A. Christakis, "Social
Indicators in Perspective", *Socio-Economic
Planning Science*, Vol. 1, No. 4, June
1970.
- Kuznets, Simon, "Quantitative Economic
Research: Function and Problem", a
lecture delivered at KDI on July 11, 19
72.
- Land, Kenneth, C., "Social Indicators", Ro-
bert, B. Smith(ed.), *Social Science Meth-
ods*, New York: The Free Press, 1970.
- Mangahas, Mahar(ed.), *Measuring Philippine
Development: Report of the Social Indi-
cators Project*, Manila: The Development
Academy of the Philippines, 1976.
- McGranahan, Donald, "Development Indicators
and Development Models", Nancy Baster
(ed.), *Measuring Development: The Role
and Adequacy of Development Indicators*,
London: Frank Cass, 1972.

- _____, E. Pizzaro, and C. Richard, "Methodological Problems in Selection and Analysi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Indicators", Unpublished Paper Presented to the ESCAP Expert Group Meeting on Measuring the Social Impact of Population Trends and Development at Manila in October, 1978.
- Moroney, M. J., *Facts from Figures*, Penguin Books, 1951.
- Moser, Claus, "Social Indicators-Systems, Methods and Problem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19, No. 2, June 1973.
- Mukherijee, Ramkrishna, *Social Indicators*, Bombay: MacMillan, 1975.
- Nordhaus, W. & J. Tobin, *Is Economic Growth Obsolete?*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72.
- Olson, M. Jr., "An Agenda for the Development of Measures of Progress of Racial or Ethnic Group", Working Paper,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68.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List of Social Concerns Common to Most OECD Countries*, Paris, June 1973.
- President's Commission on National Goals, *Goals for Americans*, New York: Prentice Hall, 1960.
- Sametz, A.W.,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he Measurement of Economic Growth", E.B. Sheldon and W.E. Moore (eds.), *Indicators of Social Changes, Concepts and Measurement*,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1968.
- Scott, Wolf, *The Measurement of Real Progress at the Local Level: Examples from the Literature and a Pilot Study*, UNR ISD Report No. 73.3, Geneva, 1973.
- Springer, Michael, "Social Indicators, Reports and Accounts: Toward the Management of Society", *Annals of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March 1970.
- United Nations, *Social Indicators: Preliminary Guidelines and Illustrative Series*, Statistical Papers Series M, No. 63, 1978.
- _____, *Towards a System of Social and Demographic Statistics*, United Nations Publication, Sales No. 74, XII. 8.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and Bureau of the CENSUS, *Social Indicators III; Selected Data on Social Conditions and Trends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December 1980.